

LG생명과학, 글로벌 제약사업 호조

LG생명과학이 글로벌 제약사업에서 높은 수익성을 보일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KTB투자증권은 9월21일 LG생명과학이 남미와 아시아를 중심으로 급성장하는 글로벌 제약시장에서 유리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며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8만8000원으로 기업분석을 시작했다.

이해린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시장에서 유리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 강화로 내수 처방 의약품 시장의 성장성이 약화하는 환경에 가장 잘 부합한다”며 “특히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임상 과제를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출실적 개선을 통해 국내 제약기업 가운데 3년간 가장 높은 이익성장률이 예상된다고 동아제약과 함께 제약 업종 최선호주로 꼽았다.

<화학저널 2009/09/21>